

The Dongguk Alumni News



동국인의 참여로
동국중흥의 새길로

동국대학교 동창회보

제216호

9

2009

<http://dongguk.or.kr>

●발행인 및 편집인_이연택 ●발행처_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주소_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B/D 302호 ●전화_(02)733-3991/3 ●팩스_(02)733-3992 ●년화비_2만원 ●기획_한우리SJM

제25대 이연택 회장 만장일치 추대 · 취임



< 공

고 >

제25대 임원 추대 및 간담회

2009 동국인의 밤

1.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오후 6시
2. 장소 : 그랜드 앰배서더 2층 그랜드 볼룸 (장충동 소재)
3. 안건 : 제25대 임원 위촉장 수여
동국발전을 위한 간담회

1. 일시 : 2009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30분
 2. 장소 : 그랜드 앰배서더 2층 그랜드 볼룸 (장충동 소재)
- ※동국인의 참여로 · 동국중흥의 새길로

자랑스러운 동국대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본회 산하 모든 조직과 모임을 체계적으로 확대 · 재정비 · 활성화해야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 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하셨습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20만 총동창회의 책임을 맡게 되어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 써오신 많은 선배님들과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모교, 그러나

저희들은 민족과 더불어 호국에 앞장서 온 불교종단의 종립학교로서,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모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별 평가 순위와 법률전문대학원 탈락 등의 보도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어찌하여 오늘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그 누구의 탓을 한들 무슨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종단과 재단, 학교 당국과 교수, 동창회와 재학생 등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랑스러운 동국대를 재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대폭 확충해야

따라서 우리 동창회에서는

첫째, 우선 모든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단과대학별, 과별, 직능분야별, 국내외 지역단위별 등 모든 조직과 모임을 체계적으로 확대 · 재정비하고 그 운영을 개방하여 활성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단합된 우리 동문들은 우수한 신입생 확보, 재학생들의 각종 자격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등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전 동국인의 참여와 협력 있어야

셋째, 교수님들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도 함께 병행하며,

넷째로, 여유가 생긴다면 종단 · 재단 및 학교 당국과 더불어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항상 동문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연택

■ 2009년 제1차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이연택 신임회장 “자랑스러운 모교의 위상 다시 찾도록 전심전력하겠다” 25대 감사에 심현식 · 이제곤 · 송재복 동문 선출



이연택 동문이 본회 제2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취임했다.

본회는 지난 8월 27일 그랜드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170여명의 임원 및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만 동문을 앞에서 이끌 수장으로 이연택 동문을 선택했다.

신임 감사에는 심현식(59/63상학·공인회계사), 이제곤(64/68경제·(주)스탠다드 부회장), 송재복(65/69경영·대한컴퓨터기술(주) 대표이사) 동문이 선출돼 총동창회 회계 경영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인도하게 됐다.

이연택(56/61법학·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동문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동문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동창회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오신 전순표 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중단, 재단, 학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다함께 자랑스러운 모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말보다는 실천으로 동국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또한 명예회장직을 신설하는 회칙 개정과 임원 선임에 대해 신임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한편, 24대 상임부회장 대표로 활동했던 조문영(56/60법학·



(주)제이앤제이스타 회장) 대표에게는 동문의 화합과 발전하는 동창회를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동문간 의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끔으

로써 하나된 동국의 기틀을 강화하는 등 모교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려 감사패를 전달했다.



심현식 감사



이제곤 감사



송재복 감사

이연택 신임 회장은?

청와대 행정수석, 총무처장관, 노동부장관등을 역임했고,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와 체육행정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1998년도부터는 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도 모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행정학박사)와 법과대학 석좌교수를 맡아 후배들을 가르치는 등 남다른 모교사랑을 보여 주었으며, 2008년도에는 동국대학교를 널리 알리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자랑스런 동국인’ 상을 받기도 했다.

이연택 신임 회장은 정부행정과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으며, 저서로는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1997)’가 있다.

■_ 화보



사
진
설
명

- ① 자관 총무원장 큰스님을 예방하고 종단과 모교발전을 협의했다. (2009.9.2.)
- ② 정련 법인 이사장 큰스님을 예방하고 동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09.9.2.)
- ③~⑧ 2009년 제1차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 ③ 동문들에게 인사하는 전순표 24대 회장, 송석구 고문, 이연택 25대 회장. (좌측부터)
- ④ 건배제의를 하고 있는 이민휘 고문.
- ⑤ 참석 동문들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있다.
- ⑥~⑦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동문들과 함께...
- ⑧ 전순표 24대 회장이 조문영 상임부회장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_ 본회 소식

상임고문 위촉 - 20만 전동국인과 함께 발전하는 동창회 위해 자문 역할 이민휘 · 김동정 · 송석구 · 원용선 상임고문



이민휘 상임고문

- Train Works 회장
- 前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 前 필립정보통신(주) 회장



김동정 상임고문

- 변호사(신사합동법률사무소)
- (재)동우장학회 이사장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석구 상임고문

- 가천의과학대학교 총장
- 前 동국대학교 총장
- 前 국제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원용선 상임고문

- 남양이앤씨 대표이사 회장
- (재)동우장학회 이사
- 前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본회 제25대 이연택 회장이 취임하며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한 상임고문에 이민휘(52/56정치) · 김동정(53/57법학) · 송석구(58/62철학) · 원용선(59/63영문) 동문을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이연택 회장이 취임하며 밝힌 총동창회 주요 사업에 대한 동문들의 의견을 반영, 20만 전 동국인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동창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연택 회장은 총동창회 주요 사업으로 ▲본회 산하 모든 조직과 모임을 체계적으로 확대·재정비하여 활성화하고 ▲우수 신입생 확보와 재학생들의 각종 시험 합격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장학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지원하며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중단·재단 및 학교 당국과 더불어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안내> (재)동우장학회 기부금 세제 혜택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에 법인 및 개인이 기부하신 금액은 전액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신입생 확보, 재학생 지원, 교수연구비 지원 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동우장학회에 기부하신 금액은 연간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24조 2항)
- 개인 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동우장학회에 기부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공모> 총동창회 구호

본회 제25대 체제가 출범하며 20만 동국인 모두가 공감하고 같이할 수 있는 구호를 공모합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모교, 전 동국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동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짧지만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구호로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 시 상 : 대상 - 50만원 상당 물품
금상 - 30만원 상당 물품
은상 - 20만원 상당 물품
- 시상일 : 2009 동국인의 밤 행사시(2009.12.10(목요일))

■ _ 본회 소식

수석부회장 및 직능별 담당 부회장 회의 - 위촉장 수여

본회는 지난 9월 21일 오후 5시 총동창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이연택 회장을 비롯한 상임고문 및 송석환 수석부회장, 각 직능별 담당 부회장, 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택 회장은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각 직능별 담당 부회장님들이 맡은바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만 전 동국인과 함께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직능별 담당 부회장



송석환 (64/68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홍영춘 (61/65불교)
기획운영담당부회장



이재형 (64/68불교)
총무담당부회장



구자선 (79/81경영)
재무담당부회장



홍파스님 (63/67불교)
장학담당부회장



양수성 (61/65경영)
조직담당부회장



서영준 (64/68법학)
대외협력담당부회장



박상호 (64/68법학)
체육담당부회장



김형태 (61/65불교)
문화담당부회장



강영규 (70/77경영)
취업담당부회장



유태현 (76/80영문)
홍보담당부회장



김영희 (60/63법학)
여성담당부회장

수석부회장 및 직능별 담당 부회장 주요 업무

● 수석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결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직능 담당 부회장을 총괄하고 회장을 대리해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

● 기획운영담당 부회장

- 회장 및 수석부회장 결석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 직능 담당 부회장의 의견을 총괄하여 회장과 수석부회장에게 제시한다.
- 본회의 운영관련 기획 및 평가,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총무담당 부회장

- 본회의 일반적인 사항과 기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관장.

● 재무담당 부회장

- 본회의 재정의 조달 및 자산의 증식과 각종 자금조성에 관한 업무관장.

● 장학담당 부회장

- 장학기금 조성 및 그에 따른 제반 사무 관장.

● 조직담당 부회장

- 본회의 회원 및 본회의 조직과 산하 조직에 관한 사항 관장.

●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 본회의 대외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

● 체육담당 부회장

- 본회의 체육활동 및 모교 체육 중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 관장.

● 문화담당 부회장

- 본회의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관장.

● 취업담당 부회장

- 본회의 회원 취업 및 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

● 홍보담당 부회장

- 본회의 각종 홍보와 출판 및 동창회 신문 발간 사업 업무 관장.

● 여성담당 부회장

- 본회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에 관한 업무 관장.

■_종합

이인정 동문 - 장학기금 1천만원 기부

이인정(65/72상학·분회 부회장) (주)태인 대표이사는 지난 9월 14일 (재)동우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사)대한산악연맹 회장과 한네팔친선협회 회장 등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인정 동문은 1987년 (주)태인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주)태인은 누전 차단기, 배전용 차단기 등 전기관련 제품과 SDRAM등 전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ISO 9001, ISO14001, KS표시인증, JIS인증, 안전인증 등을 취득했다.

(주)태인은 1998년에 충청북도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06년에는 조세의 날 국세청장상 수상, 2008년에는 LS산전



(주) 베스트 협력사부문 최우수상 수상, Hynix 반도체 품질 무사고 1000일을 최초로 달성하기도 했다.

(재)동우장학회 장학금 지급

“동국인 성장·발전토록 지속적으로 돕겠다”



(재)동우장학회(이사장=김동정·53/57 법학·변호사·분회 상임고문)는 지난 8월 21일과 24일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에서 장학생 20명(서울

캠 12명, 경주캠 8명)에게 장학금(1인당 1백만원)과 증서를 전달하고 모교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서울캠퍼스 ▲김태성(사회복지학과 3년) ▲한준섭(중어중문학과 3년) ▲최지은(화학과 1년) ▲최민철(법학과 3년) ▲사현영(정치외교학전공 3년) ▲강덕호(경영학부 1년) ▲송현일(생명과학과 3년) ▲김기태(기계공학과 3년) ▲박장업(건축공학과 4년) ▲김현명(교육학과 3년) ▲노창호(문예창작학과 4년) ▲양열매(광고홍보학과 4년)

■ 경주캠퍼스 ▲윤열(불교학전공 4년) ▲김경재(고고미술사학전공 3년) ▲조계수(생명공학전공 3년) ▲황미희(사회복지학과 4년) ▲최윤희(경영학전공 3년) ▲이동수(수학교육과 3년) ▲양우중(한의예과 2년) ▲이윤임(의학과 2년)

최연이 할머니

모교에 어렵게 모은 전재산과 시신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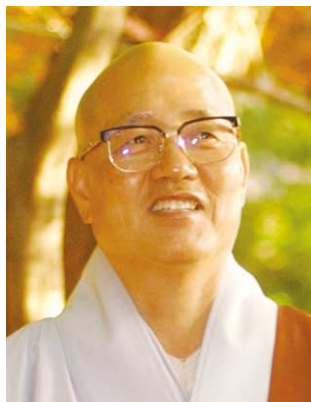
한 70대 할머니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와 시신까지 기증키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연이(73) 할머니는 최근 전 재산인 84.96㎡(25평) 아파트(2억1,500만원 상당)를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최 할머니는 이미 사후에 동국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였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30대이던 1960년대 후반 부산으로 건너와 직물공장 등에서 힘겹게 일하다 86년부터는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 공양주 보살생활을 했다.

자녀는 없고 두 오빠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스님인 남동생과 조카 한 명이 유일하다. 공장과 보살생활을 통해 푼푼이 모은 돈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 ‘내 집’을 마련한 건 94년 6월. 당시 1억원 정도였던 아파트 값은 15년 만에 2배 정도 올랐다. 최 할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해운대구청의 도움으로 불교재단 대학인 동국대에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장학금으로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인 이사장에 정련스님 취임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련 이사장 스님

의 새로운 각오와 동국대 구성원 모두의 협력으로 동국대가 30만 동국가족과 2천만 불자들을 위한 명예로운 대학이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취임법회에 앞서 지관스님과 정련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직무실에서 환담하면서 “중단과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6대 이사장 정련스님 취임식이 지난 7월 21일 오전 11시부터 모교 본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개식 ▲삼귀의례 ▲국민의례 ▲고불문(정각원장 법타스님) ▲종정범어(원로회의 부의장 부림스님 대독) ▲취임사 ▲치사(총무원장) ▲축사(총회회장, 부산시장, 총동창회장, 총장) ▲내빈소개 ▲꽃다발 증정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신임 이사장 정련스님은 취임사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단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안정과 화합,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이날 치사에서 “이사장 정련스님

마음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순표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련스님을 이사장으로 모심으로써 동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원로의원 정무스님, 종하스님, 동국대 이사 현성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등 중앙총무기관 소임 스님들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오영교 동국대 총장, 신국주·송석구 전 모교 총장, 최규철 전 모교 부총장, 전순표 총동창회장, 조문영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대표, 구자선 상임부회장, 임덕규 지도위원, 최진식 부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조승수·박선영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가을 학위수여식

서울 1,119명 · 경주 369명 학위반아

2009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는 지난 8월 21일 중강당에서, 경주캠퍼스는 8월 24일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거행됐다. 가을 학위수여식은 이사장 정련 스님, 전순표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퍼스는 총 1,119명(박사 72명, 석사 441명, 학사 606명)이, 경주캠퍼스는 총369명(석사 58명, 학사 31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총장



과 교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는데 정진해 주길 바란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_지부·지회 소식

4.19혁명 유공계승자회 창립 총회 신임회장에 박영식 동문



박영식 회장

동국대학교 4.19혁명유공계승자회 창립 선포식이 지난 7월 22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4.19혁명 국가유공자와 4.19혁명에 앞장섰던 동국대학교 주역들이 중심이 돼 만든 모임인 4.19혁명유공계승자회는 4.19정신을 자손만대에 계승코자 창립되었다.

박영식(57/61정치)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19혁명 유공자들의 예우문제와 미 포상 혁명 주역들에 대한 보훈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에는 김칠봉(58/63법학) 동문이, 감사에는 박중구(59/65경영·분회 부회장) 동문이 선임됐으며, 나머지 임원 선임은 20만 전 동문을 대상으로 박영식 회장과 집행부에 위임했다.

전북동문회

모교 축구부 초청 만찬열어 격려



육기동 회장

전북동문회(회장=육기동·61/65식공·(주)팔마 대표·분회 상무이사)는 지난 7월 열린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한 모교 축구부 선수단(선수 25명·임원 15명)을 초청해 만찬을 개최하고 격려했다. 배기열(76/80체교·예원대학교 학생처장) 사무국장은 이 만찬회에 음료수 4BOX를 협찬했다.

동국라이온스클럽 설립 22년만에 해체

동국라이온스클럽이 해체됐다. 1987년 8월 24일 조직총회를 위해 결성키로 하고, 동년 1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동국라이온스클럽이 지난 5월 21일 마지막 모임을 갖고 설립 22년 만에 해체됐다.

101명의 동문들이 모여 시작된 모임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참여하는 후배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21명)에 미달하게 되어 결국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최윤식(57/61경제) 동문의 봉사로 설립된 동국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초대 정재철(49/52정치) 회장을 비롯해, 정관용(55/58법학), 박준형(57/63경제), 정인악(55/60화학), 이화일(61/65상학) 동문 등이 회장을 역임하며 101명의 선·후배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금 등 각종 봉사금으로 1억 3천여만원을 기부했다.

남은 금액은 헌장규정에 의거, 본회 동우장학회 장학금으로 300만원, 최재구회장추모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잔액을 전부 봉사금으로 전달했다.

불교문화대학원동문회 -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심산스님 추대·선출



심산스님

불교문화대학원동문회(회장=강선태·01/03불문원·대성한의원 원장)는 지난 8월 17일 부산 흥법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선출했으며, 동문회 설립운영을 책임질 감사에는 성문스님, 안홍열 동문을 선출했다.

심산스님은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를 거쳐 2003년부터 현재까지 흥법사 주지를 맡으면서,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 세계화를 위해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쾌척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침향은 가짜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청보원(히말라야)에서
상의하세요.



침향 합장주

침향 108염주



침향 108염주



침향목



중국 고미술 전문점

清寶齋 (Qingbaozhai) 히말라야

대표 이 희 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TEL : 02-722-2269 FAX : 02-725-3150

HP: 011-266-0338



귀하의 스포츠 회원권은

국내 최고·최상의 실내 스포츠는 물론
해외 및 수도권 명문 골프장에서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회원권입니까?

국내외 특급호텔에서도 볼수없었던 고품격으로 대한민국 최상의 시설로
미래의 확실한 투자가치까지 갖춘 **르·메이에르스포츠 종로센터**



특권 1
르·메이에르스포츠 신촌센터 및 사당센터
두군데 특급시설을 정회원 자격으로 무료이용



특권 2
르·메이에르 청평 수상스포츠타운
요트 등 고품격 레저시설 회원자격으로 이용



특권 3
호주 르·메이에르 호라이즌 골프리조트
회원자격으로 이용



특권 4
청정자연 속 레저스포츠의 메카 용평에 조성
중인 고품격 복합리조트 '용평 파라디자이'
및 9홀 골프장 회원자격으로 이용



특권 5
수도권 명문골프장 부킹서비스 및
주중회원대우 혜택



특권 6
향후 르·메이에르스포츠에서 운영하는 모든
레저시설에 대해 회원자격 부여

회원가입 문의전화
02)737-9660~5



Since 1973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훈령 제67호(물가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제24호를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본 협회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예산 운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용역 및 물자의 유통가격을 비롯한 공사 제조회가 등의 경제동향을 조사하여 종합분석한 결과를 회원 및 경제 사회 각 분야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격조사 및 원가조사용역 기관입니다.



한국물가협회가 펼치는 사업 하나 하나는 한국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조사연구사업

- 정기물가조사 : 월간물가, 주간 소비자물가, 주간 도매물가
- 수시물가조사 : 수시물가, 특수물가, 불용품시가
- 기획조사 : 단체급식, 식부자재, 김장비용, 제수용품, 선물용품, 시중노임, 기타 기획조사
- 경제분석 및 통계자료 : 건설자재 도매물가지수 연구 개발, 산업동향 조사 분석, 경기정량 조사 분석
- 마케팅조사 : 소비자 태도조사, 소비자환경 조사분석, 산업환경 조사분석

전산정보사업 www.kprc.or.kr

- 국내 최초의 물가·적산DB 구축!
- 20만여 품목의 물가DB 검색 서비스
- 1만여 건설공사 일위대가 적산DB 검색 서비스
- 상품정보, 업체정보, 국제원자재가격 서비스

인터넷 회원가입 접수중 / 인터넷광고 연중 수시 접수!!

원가조사연구

- 제조원가조사 및 각종 학술용역, 원단위 조사
- 토목·건축·기계·전기설비 등 각종 공사비 계산업무
- 각종 시설물의 보수유지 및 철거 이전비 계산업무
- 공사의 표준 물·공량 산출과 공사 일위대가표 작성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calation)업무
- 개발비용산정 용역업무

적산연구사업

- 적산 및 건설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연구
- 건설기술 관련 제도 및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 시중 실적 공사비 조사 연구
- 건축리모델링 공사비 조사·분석
- 시중 노임실태 조사 연구
- 건설관련 각종 제도의 연구 조사

도서출판사업

物價資料 * 정부 공인 물가전문지 1호
* 국내 최대의 발행부수
4X8배판 / 2,000여면(상·하) / 연회비 180,000원

綜積算資料 * 건설공사 실용 일위대가 수록
* 新 개정품셈 및 시중노임 적용
4X8배판 / 1,500여면 / 값 60,000원

건축리모델링 * 36년 노하우의 결정판
* 리모델링의 현장실무 지침서
4X8배판 / 750여면 / 값 20,000원

정무인종 가격정보 * 우선구매/의무구매
우수계통 * 업체·제품·가격 정보 총망라
4X8배판 / 750여면 / 월간물가지료 특별부록

(주)코리아PDS www.koreapds.com

- (사)한국물가협회 출자회사
- Global Market Intelligence Provider
- 국제원자재상품 및 국내물가 가격정보
- 과학적 통계분석모형을 이용한 예측솔루션

기획재정부 허가 제24호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대표전화 02)799-0700 팩스 02)799-0882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롯데IT캐슬 1동 13F

- 전국지회 경기지회 (031)243-8751 인천지회 (032)421-1941 부산경남지회 (051)469-7536 대구경북지회 (053)425-0634 광주전남지회 (062)528-5732 대전충남지회 (042)525-0761 전주사무소 (063)283-7980 경남사무소 (055)288-0229 강릉사무소 (033)646-3407 춘천사무소 (033)252-7835 청주사무소 (042)525-0761 포항사무소 (054)261-4889 울산사무소 (052)272-2546 진주사무소 (055)742-1965 제주사무소 (064)799-0436
- 전국사무소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佛敎新聞

불교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매체 1위 선정

- 2008년 12월 '시사저널' 과 '미디어리서치' 에서 한국사회 30대분야
1,5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창간 50주년에 빛나는 한국불교의 대표언론

파란만장한 종단 역사의 현장에서 2천만 불자의 눈과 귀, 입이 되어 불법을 전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모든 불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 한국불교의 산실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부처님의 법향이 있습니다

불교신문에는 초대 종정스님인 효봉스님부터 한국 근현대불교사를 이끌어 온 선사들의 삶과 역정이 담겨있습니다.

대표 선묵 혜자 스님 (도선사 주지, 총동창회 부회장, 96.9 불교대학원)

1960년 창간! 주2회 발행 구독료 : 월 5,000원

구독신청문의 02)730-4488 www.ibulgyo.com



▲ 불교신문을 빛낸 주요 인물



회장 김석만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중동상회장

- 울산 중구 반구동 62-2
- TEL : 052)296-3000
- FAX : 052)296-3003



신한종합건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듯
느끼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명작
Best Premium
신한디이제



(캐치프레이드)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학!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이며, 우리 민족의 큰 경사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독창성,
이제 한의학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김현수
강재만
김장현
윤한룡
김정곤
이상택
류은경
김인범
손창수
최방섭
박혁수

기획이사
기획이사
정책(보험)이사
학술이사
학술이사
법제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보험(의무)이사
국제이사
국제이사

양인철
최형일
이석원
임병목
장규태
양경선
문병일
김문호
정채빈
이종안
고종욱

홍보이사
정보통신이사
정보통신이사
무임소이사
무임소이사
대의원총회 의장
대의원총회 부의장
대의원총회 부의장
감사
감사
감사

이상봉
홍성인
안효수
남용재
김현수
이범용
정명재
정경진
한윤승
최연성
이승교

■_종합

경제학과동문회 - 임시총회 신임회장에 한영휘 동문 추대



한영휘 회장

경제학과동문회는 지난 7월 7일 임시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한영휘(56/61경제·한영무역(주) 회장·본회 지도위원) 동문을 추대했다. 지난해 4월부터 회장 유고상태였던 경제학과는 이날 총회를 열어 임원수 확대 및 회장단 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새로

회장을 뽑는 등 모임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영휘 신임회장은 “우리 경제과 발전을 위한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으며,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선임권을 위임받았다.

4.19혁명동지회 -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국가유공자로 선정돼도록 전원 노력키로



윤성열 회장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회장=윤성열·59/63상학·동화기영(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는 지난 7월 23일 ‘대호’에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19혁명 국가 유공자 선정 신청의 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4.19혁명 당시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보훈처에 신청, 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회원 전원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성열 회장과 신승길(58/63경제·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회장·본회 지도위원) 명예회장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본회에 기증 동국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노병현 동문 - 그림 1점 기증



노병현(64/71사학·본회 상무이사) (주)진주랑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9월 1일 본회에 그림 1점을 기증했다. 국전에서 특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태운 화백의 작품으로 ‘금강산 만물상 석양’ 180호.

지부·지회 임원(회원) 주소록 등록

1. 지부·지회 사무국장(총무)님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 명단을 총동창회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보내주신 자료는 지부·지회 활성화, 동문관리에 사용되며 동창회 신문이나 기타 안내서 및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지부·지회에서는 연말(10월~12월)행사 계획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심회

TV(비디오 겸용) 1대 기증

동심회(회장=송석환·동진기업(주) 회장·본회 수석부회장)는 지난 9월 7일 본회에 TV(비디오 겸용) 1대를 기증했다.



송석환 회장

동악회

노트북 컴퓨터 1대 기증

동악회(회장=서영준·(주)동양 회장·본회 대외협력담당부회장)는 지난 9월 7일 본회에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기증했다.



서영준 회장

강운성 동문

레이저복합기 1대 기증

강운성(77/81교육·본회 부회장) (주)동부솔루션 대표이사는 지난 9월 1일 본회에 레이저복합기(팩스) 1대를 기증했다.



강운성 동문

■ _ 동문동정

대형회센터 오픈



이주형(61/65경제·분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항에 대형회센터인 어촌회집을 열었다.



옥 부총재는 “‘화합과 단결로 참 봉사 실천’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토대로 재미있는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으로 중용되기도 한 박 동문은 부이사관 승진 후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으로서 보임됐으며, 최근 서현수 전 대구국세청장 퇴임 이후, 대구국세청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모교 사회교육원 초빙교수



노병현(64/71사학·분회 이사) (주)진주랑 회장은 9월 가을학기부터 모교 사회교육원에서 골프지도자 과정 교육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노 동문은 프로, 프로지망생, 골프지도자, 골프관련사업 종사자들에게 ‘엘리트 골퍼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는 공사 경영을 감시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한국저축은행 감사위원

정현조(77/81법학) 동문이 지난 8월 28일 열린 한국저축은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정 감사위원은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감사원 부이사관을 역임했다.

국제라이온스 강원9지역 부총재

함상욱(71/78 경영) 동문은 지난 7월 23일 국제라이온스클럽 강원지구 9지역(속초·고성·양양) 부총재로 취임했다. 함상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청 ‘정보집적부서’인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통일고문에 위촉

정정택(91행원) 동문이 지난 7월 17일 통일 고문에 위촉됐다. 통일고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위촉된 정 동문은 경기대 정치안보대학원 겸임교수와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대위 특별보좌역을 역임했으며, 뉴라이트전국연합 수석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인권 동문 - 차세대 한국영화계를 이끈다

영화 ‘해운대’가 재발견한 스타 김인권(96/03연영). 김인권 동문이 연기를 시작한 것도 벌써 10년째이지만 그가 이만큼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은 ‘해운대’가 처음이다.

영화 연출을 꿈꾸며 연기를 시작한 김인권은 조연배우로서 차근차근 10년의 세월을 걸어왔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해운대’에서 김인권은 극중 하지원의 동창인 백수건달 동춘 역으로 등장해 관객들에게 사랑과 미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안겼다.

광안대교 위로 떨어져 내리는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에서 움찔하는 동춘의 표정은 관객들을 폭소케 했고, 어머니와의 가슴 아픈 사연은 눈물을 자아냈다.

김인권은 ‘해운대’ 1000만 관객 돌파의 소감을 묻자 윤제균 감독과 선배배우 설경구에게 고마움의 뜻을 밝혔다. 아직도 개구장이 같은 20대 청년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김인권은 스물여섯에 결혼해 두 딸을 키우고 있다. ‘해운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김인권도 스타가 됐지만 집안에서는 평범한 남편이고 아빠일 뿐이라며 웃는다. 자신의 연기에 대해 늘 쓴 소리로 조언하는 아내와 어린 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_ 동문동정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이념 확산시키는데 노력 기울인 공로 인정



정동일(01/05경영·정의 복수전공·본회 부회장)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9월 16일 남산 자유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55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포상인 '자유장'을 수상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평소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총 127개 국가와 단체로 결성되었으며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민간기구로 2001년부터 자유 민주주의 가치 창달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 및 사회 인사들을

선정하여 자유장과 봉사장을 시상하고 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취임 이후 평소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공약 사업,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구의 구정목표를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로 삼고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도심가로수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남산자락 대규모 녹지공원 '꿈의 동산' 조성 ▲국제적 규모의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영어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효도특구' 지정에 따른 다양한 효행장려사업 추진 ▲금융·관광 허브 조성을 위한 도심건축물 높이 규제 해제 추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중구를 만들기 위한 역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중구 발전을 한 차원 앞당겼다.

김복규 경북 의성군수

“도시보다 살기좋은 농촌, 관광과 레저, 휴양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



“마을과 산수유 의 고장 의성을 활기찬 전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복규(행정) 경북 의성군수는 “전통적인 농업의 고장인 의성을 단순한 농업생산기지를 넘어 관광과 레저, 휴양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잘

보존된 청정환경과 농업문화를 살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재양성원 설립 등을 통해 '도시보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은 김 군수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여가공간 확보, 건강관리, 소득창출을 연계한 삼위일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270여개의 경로당을 신축했다. 특히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돼 2012년까지 3,400억원을 투입해 신개념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전통문화와 유적을 발굴

· 정비해 체류형 테마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고목으로 유명한 금성면 산우리 산수유마을을 전국 최고의 봄축제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구감소의 주요인으로 보고 명문고 진학을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원을 설립해 '농촌에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의지를 실천해 가고 있다.

불교대학원동문회 지도자연수교육



불교대학원동문회 (회장=문황진·92/불원·(주)MAX해민산업 대표이사 회장)는 지난 7월 11일~12일

(1박2일) 경기도 가평 좋은아침 연수원에서 동문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차 지도자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_ 동문동정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3선 국회의원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변신 성공

“1초 경영으로 세계 최고 전기기업으로 도약” 해외매출 증가율 1000%



“1년의 전기안전공사 생활이 12년의 의정 생활보다 힘들었지만, 또 재미있고 보람찬 한 해였다. ‘1초 경영’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전기안전 전문기업으로 도약 하겠다” 10월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임인배(90/95일원·전 국회의원) 한국 전기안전공사 사장. 15~17대 3선 국회

의원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변신, 공기업 혁신과 경영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꺼내 든 ‘1초 경영 전략’을 역점 사업인 서민생활 지원 전기안전 서비스 강화, 해외 전기안전 서비스 사업 확대 등에 끈장 반영해 왔다.

◆서비스질 향상을위한 ‘1초경영’

임 사장이 주창한 대표 경영전략은 ‘1초 경영’이다. 단순히 ‘빨리빨리’의 시간 단축을 넘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한 발 더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바

로 ‘1초’의 의미다. 그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선진화 및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초 경영 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 혁신과제 208개 항목을 선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했다.

◆공기업의 서민 지원 역할모델로

임 사장이 올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서민생활 안전 지원사업과 해외사업 확대 그리고 직원복지 향상이다. 우선 저소득층의 전기시설이 고장 나면 긴급 출동해 불편을 해결하는 전기 119 제도인 ‘스피드콜 제도’를 일부 저소득 계층에서 농촌 및 사회복지시설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해외부문에 매출이 1000% 늘어 올해는 순이익만 총 2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인사 대천명’이 좌우명이라는 그는 “일에 미쳐 열심히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CEO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정희 시인 - 등단 40주년 기념 ‘지금 장미를 따라’ 펴내

솔직하고 활달한 언어로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다



“시인은 나이가 있지만, 시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등단 40년에 대한 개인적인 감회보다는 굴곡 많았던 역사를 시인으로서 겪고 ‘살아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고 활달한 언어로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갈망을

노래해 온 문정희(66/70국문) 시인.

등단 40년을 맞아 130여편의 시를 추린 선집 <지금 장미를 따라>(뿔 발행)를 낸 그는 “늘 새로운 감각을 찾으려 하고 끼도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자리에 앉게 해주고 나를 지켜준 것은 시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가 정식 등단한 것은 대학 4학년 때인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그는 이미 미당 서정주의의 추천으로 진명여고 3학년 때

시집 <꽃숨>을 내기도 했던 유명한 ‘문학소녀’였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발의 도토리처럼 이리 저리 밀쳐져서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내 시의 원천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보면 나의 생명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식의 발로가 이런 페미니즘 시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시. 그에게 시란 무엇일까? “조숙했는지 어린 시절부터 삶이 지루하고 텅텅없다고 느껴졌어요. 오로지 시만이 싫증이 나지 않았지요. 이번 시집은 아직 내게는 무의미한 것 같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한 선택!

맛있는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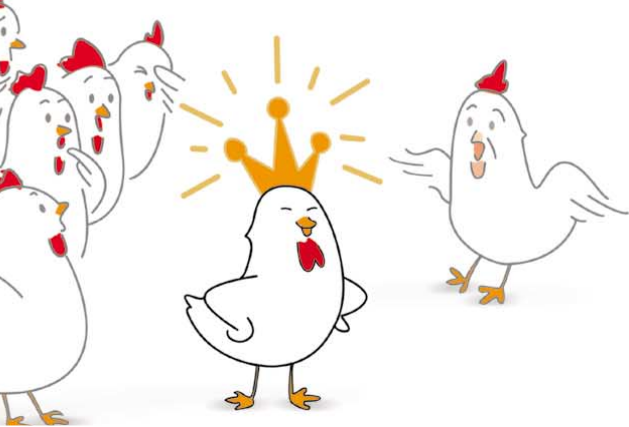
둘둘치킨!

둘둘치킨은
100%
국내산
냉장육
만 사용합니다

둘둘치킨은 수입육, 냉동 전혀 쓰지 않습니다



※ 둘둘치킨은 특수한 양념과 얇은 튀김옷으로 튀기면 검게 보입니다
(타거나 오래된 기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세요!)



이래서 치킨하면 **둘둘**입니다

- 국내산 신선육 - 냉동, 수입육을 전혀 쓰지않는 100% 국내산 냉장육
- 고소한 현미유 - 현미유로 만든 둘둘치킨 천용유로 건강도 맛도 두배!
- 특수한 튀김기 -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게 30여년의 노하우!
- 폭배인 양념맛 - 특수양념으로 24시간 숙성



기쁜세상,
행복한 사람,
함께하는 은행



www.serambank.co.kr

세람저축은행

회장 이재용

☎467-030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94-7 TEL. 031-633-6781
FAX. 031-632-6785 E-mail. 2000jay@hanmail.net



오수환변호사

辯護士 / 辦理士 吳 洙 煥

- 용인시 고문변호사
- 용인YMCA 이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민변호인단
- 사회복지법인 우주 대표이사
-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449-9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4-2 거성B/D 201호

TEL : 031-321-4066 / FAX : 031-321-4062 / HP : 011-373-9599

각종 민사 · 형사소송 · 공증 · 경매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대표 변호사 조영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법조타운 701-3호
TEL : 032-325-3115 공증 : 032-321-6611

정보화에 앞선 인쇄사

귀사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인쇄산업신문과 함께라면 이미 치열한 산업사회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목말라 있는 인쇄산업! 무한경쟁시대를 개척하는 유일신문!
32~44페이지 색션전문신문!
귀사의 성장과 함께 끝까지 신뢰와 의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필수과목 **인쇄산업신문**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빠른 언론! 국내 유일신문 **인쇄산업신문**으로 귀사의
정보력을 배가 시키십시오. 그리고 오피니언이 되십시오.



구독 및 광고 문의 : (02) 2264 - 9791

대표 박종세(본회 상무이사 · 경영 92학번)

신속한 뉴스, 다양한 정보, 깊이 있는 신문 www.korpin.com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89-1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702, 802호
전화 : (02)2274-5168~9 팩스 : (02)2263-9721

“동국대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차로

회장 김인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238-1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희주물제작소

대표이사 허경욱
(상학과 68년 졸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81-75 서부공단 內
TEL. 032-561-8997 FAX. 032-561-4719

회비납부동문 (단위 : 만원)

- 알림**
1. 회비명단은 가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기해 주십시오.
 3. 회비납부기간 : 2009. 3. 1. ~ 2009. 9. 23.

회장	▲이연택(56/61법학)	100
고문	▲민병천(56.4/58.3일원)	30
	▲송석구(58/62철학)	20
	▲신국주(46/50사학)	30
	▲윤일균(67.3/69.2행원)	32
	▲이민휘(52/56정치)	20
	▲이재창(51/55경제)	20
	▲전순표(53/57농학)	330
지도위원	▲박은규(59/61정치)	30
	▲신상두(60/64법학)	30
	▲심경모(57/61영문)	32
	▲이광세(86.3/88.2경원)	30
	▲조재호(61/65불교)	30
	▲조희영(59/63경영)	30
	▲허천택(56/61영문)	30
	▲현성스님(72.3/73.2행원)	30
부회장	▲김규태(93.9/95.8행원)	100
	▲김오현(76/80체교)	100
	▲김진선(71/74행정)	100
	▲민우동(58/64법학)	100
	▲박중윤(56/59경제)	100
	▲박현수(86/90연영)	100
	▲백문기(60/63법학)	100
	▲법타스님(67/74인철)	100
	▲부충식(63/70경제)	2
	▲서영준(64/68법학)	100
	▲서정호(71/76경영)	100
	▲선목 혜자스님(96.9/98.8불원)	100
	▲성웅스님(91.3/93.2불원)	105
	▲손진호(95.3/97.2경원)	100
	▲신동수(71/75경영)	100
	▲신정철(60/67경영)	100
	▲안명근(59/67경영)	100
	▲양쾌석(93.9/95.8행원)	100
	▲여익구(67/94사학)	100
	▲유순이(55/60정치)	2
	▲윤부성(61/63생물)	100
	▲윤성열(59/63사학)	100
	▲이두철(89.3/91.2사원)	300
	▲이상진(72/76법학)	100
	▲이상윤(93.9/98.8일원)	100
	▲이상현(54/58경제)	100
	▲이승성(76/77체교)	100
	▲이재형(64/68불교)	100
	▲이화일(61/65사학)	100
	▲임영신(53/57경제)	100
	▲장용순(00/04국제통상)	2
	▲전부중(80/87사교)	100
	▲전태성(53/57경제)	100
	▲정동원(01/05경영, 정의)	100
	▲정부자(93.3/95.2행원)	100
	▲정연환(58/62정치)	102
	▲조문영(56/60법학)	100
	▲조은구(64/68경제)	100
	▲조일성(58/66국문)	100
	▲조창현(64/68경행)	100
	▲차민수(69/73경제)	100
	▲채규민(58/75정의)	100
	▲채정욱(86/92의학)	100
	▲최준섭(05.3/07.2불원)	100
	▲최진수(78/85연영)	100
	▲최진식(77/83무역)	100
	▲한우삼(63/69농학)	100
	▲형중호(56/61법학)	100
상무이사	▲강수일(59/64사학)	20
	▲강중영(60/65행정)	20
	▲고광윤(61/65농학)	20
	▲권영수(58/64법학)	20
	▲김택원(71/75농학)	20
	▲김보현(91.9/93.8불원)	20
	▲김삼현(59/65불교)	20
	▲김성수(64/68경행)	2
	▲김성호(91.9/93.8불원)	20
	▲김애주(76/81영문)	20
	▲김용구(70/74농경)	20
	▲김용길(61/65법학)	20
	▲김용필(57/63영문)	20
	▲김윤중(67/73정의)	20
	▲김제문(66/70법학)	20
	▲김춘호(69/76전자)	22
	▲김충식(61/63사학)	20
	▲김홍우(60/64연영)	20
	▲류승희(65/72경영)	20
	▲박명순(64/68불교)	20
	▲박종세(92/94경영)	20
	▲방조원(77.9/78.8행원)	20
	▲법운스님(95.3/불원)	20
	▲변종수(65/67경제)	20
	▲성나흔(82.9/83.8행원)	20
	▲성영석(67/71경영)	20
	▲송영근(84/88영문)	20
	▲심춘섭(57/61정치)	20
	▲오영수(74/80전기)	20

동문 여러분의 회비 : 소중히/아껴서 쓰겠습니다.

20만 동문 여러분!

1. 연회비(2만원)는 본 동창회보 제작·발송의 주 재원입니다. 연회비 납부는 영원히 지속되는 동문애의 출발입니다.
2. 앞으로는 연회비를 납부한 동문 위주로 회보를 배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깊이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봉한 지로용지/1년에 한번만!!!)
3. 주소 불명으로 인한 반송 회보로 막대한 비용·인력의 낭비를 예방키 위하여 이사할 때는 변경된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외환은행 150-22-01536-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윤용숙(93.3/95.2불원)	20	▲김영환(63/67정의)	10	▲손일환(93.9/94.8사원)	10
▲이범규(66/73농학)	20	▲김완규(63/70농학)	10	▲신형태(54/57경제)	10
▲이순우(60/64경제)	20	▲김완식(64/71농학)	10	▲신형철(77/81체교)	10
▲이연석(66/74경행)	20	▲김윤락(98.3/99.2사원)	10	▲안규호(97.9/98.8사원)	3
▲이재호(79.3/81.2경원)	20	▲김원상(67/71연료공)	10	▲안병민(68/72도공)	10
▲이장수(80/87회계)	20	▲김재홍(56/60경제)	10	▲안일환(74/81전자)	10
▲장세균(67/72철학)	20	▲김정곤(95/02법학)	10	▲양규철(64/68농학)	10
▲장송모(75.9/77.3경원)	20	▲김정길(63/68인철)	10	▲엄만용(71/75건축)	10
▲전진표(60/64인학)	20	▲김중진(70/74회공)	10	▲오경택(74/78토목)	10
▲정광시(79.9/82.2경원)	20	▲김중찬(94/97경영)	10	▲오택원(73/77국문)	10
▲정연수(70/74과교)	20	▲김중호(64/70인학)	10	▲원현기(64/68인학)	2
▲조국형(58/62정치)	20	▲김진길(72/78행정)	10	▲유문희(65/69식공)	10
▲차준근(64/68사학)	20	▲김진용(58/65경제)	10	▲유정우(58/63법학)	10
▲최동선(59/63경제)	20	▲김창기(95.9/97.8경원)	10	▲유지원(65/69응생)	10
▲최병식(59/64불교)	20	▲김창환(65/67경영)	10	▲윤두옥(59/63생물)	10
▲최영철(95.3/97.2불원)	20	▲김창희(74/78수학)	10	▲윤만진(94.3/96.2경원)	12
▲허갈남(63/67응생)	20	▲김철규(84.3/86.2경원)	10	▲윤여달(64/68법학)	10
▲허봉주(89경원)	20	▲김태원(72/77체교)	10	▲윤영창(63/67국문)	10
▲혜담스님(98.3/01.2불원)	20	▲김홍찬(57/63법학)	10	▲윤천수(71/75정의)	10
▲홍선기(69/73정의)	20	▲김희수(00/01사원)	10	▲윤택(61/66경제)	10
▲홍진수(98.3/00.2경원)	20	▲남재우(65/69경영)	2	▲이경구(58/65법학)	10
▲황길원(95.9/98.2행원)	20	▲류복수(95.3/96.2사원)	10	▲이대로(66/70농경)	10
▲무기명	20	▲문준수(69/74인철)	10	▲이덕원(68/72사학)	10
이사		▲민경봉(60/64법학)	12	▲이상재(73/80국사교육)	10
▲권수구(75/82국문)	10	▲민병휘(63/67상학)	10	▲이상철(79/86사회개발)	2
▲길욱(70.9/72.8행원)	10	▲박기택(69/73경행)	10	▲이석우(63/71행정)	10
▲김관수(63/66행정)	10	▲박낙원(57/61정치)	10	▲이성복(71/75전자)	10
▲김덕경(76/80경행)	10	▲박대은(97/98사원)	10	▲이승주(89/96농경)	10
▲김동길(93.3/95.2경원)	10	▲박명국(76/83체교)	10	▲이영길(64/73농생)	12
▲김래동(80.3/81.2행원)	10	▲박상문(64/66국문)	10	▲이용홍(72/77농생)	10
▲김만섭(68/72법학)	10	▲박수철(53/57인학)	10	▲이우정(73/77정의)	10
▲김병희(85/89미술)	12	▲박재성(70/72건축)	10	▲이인진(60/63법학)	10
▲김보열(57/62경제)	12	▲박하서(97.9/01.2사원)	10	▲이재수(87.3/89.8경원)	10
▲김보춘(61/65정의)	10	▲박현숙(84/86경원)	10	▲이재용(64/71상학)	12
▲김상중(62/66농경)	10	▲박홍서(68/72통계)	10	▲이점구(96.9/99.8산원)	10
▲김석기(86.3/89.2행원)	12	▲방원석(54/58정치)	10	▲이종만(64/68경영)	10
▲김석희(57/63법학)	10	▲백기범(82/88한외)	10	▲이창영(49/52정치)	10
▲김수광(65/69불교)	10	▲백우원(66/70화학)	10	▲이정준(67/71경행)	10
▲김승기(69/73경영)	10	▲서동필(71/78경제)	10	▲이춘원(99.3/01.2불원)	10
▲김영민(64/77법학)	10	▲성순경(81.3/83.2경원)	10	▲이필영(63/71사학)	10
		▲순문영(69/73수공)	10	▲이학송(78/82불교)	10

▲이현우(83.3/84.2교원)	10	▲김경석(82불교학과)	2	▲도상열(58수학)	2	▲이경우(52국문)	2	▲정광호(94경영)	2
▲이현중(57/61영문)	10	▲김광우(78법학)	2	▲도철기(69경영)	2	▲이광옥(65임학)	2	▲정구인(64국문)	2
▲이희경(68/75경영)	10	▲김광혁(98전산)	2	▲류수택(67경영)	2	▲이근양(52정치)	2	▲정기석(59사학)	2
▲임화(51/55법학)	10	▲김규원(88영문)	2	▲문승국(85회계)	2	▲이덕화(95연영)	2	▲정동진(69국문)	2
▲장구한(91.9/92.2불원)	10	▲김기덕(89행정)	2	▲민병천(86산공)	2	▲이동명(86불교)	2	▲정동진	2
▲전상열(62/66법학)	2	▲김덕일(89국문)	2	▲민현석(65국문)	2	▲이동배(86불교)	2	▲정승각(51정치)	2
▲전신섭(89.3/91.2경원)	2	▲김동진(80행정)	2	▲민현호(88영문)	2	▲이동형(80공경)	2	▲정영진(88전산)	2
▲전찬익(75/82농경)	10	▲김동진(80)	2	▲박광래(61경제)	2	▲이명우(89국교)	2	▲정진하(89전산)	2
▲정광훈(65/69사학)	10	▲김동찬(82식공)	2	▲박동준(95윤리)	2	▲이문갑(92경제)	2	▲정해룡(82경영)	2
▲정중호(73/77무역)	10	▲김동철(78건축)	2	▲박병호(78회공)	2	▲이병우(85토목)	2	▲정현(91산공)	2
▲정한영(64/68농경)	10	▲김동희(02회계)	2	▲박부남(불원)	2	▲이상길(96영문)	2	▲정호영(85건축)	2
▲정현필(75/79사학)	10	▲김명규(00경영)	2	▲박상기(74수학)	2	▲이상윤(78건축)	2	▲조규영(08경제)	2
▲조석규(68/72수자원공학)	10	▲김명석(92정의)	2	▲박세현(84행정)	2	▲이상현(02생물)	2	▲조남기(87경영)	2
▲조승철(53/57농학)	10	▲김명석(92정의)	2	▲박영길(66화학)	2	▲이성오(92영화·영상)	2	▲조민규(98건축)	2
▲조정곤(59/62법학)	10	▲김무권(76회공)	2	▲박용섭(52국문)	2	▲이성형(81경영)	2	▲조병률(64국문)	2
▲조중진(54/58정치)	10	▲김병구(63경제)	2	▲박인동(86사회개발)	8	▲이순철(87국문)	2	▲조복현(86국문)	2
▲조창원(55/57경제)	10	▲김병옥(95중문)	2	▲박정민(83불교미술)	2	▲이승창(69사학)	2	▲조성각(65영문)	2
▲조현수(60/64농경)	10	▲김봉수(68통계)	2	▲박정복(86회계)	2	▲이양길(68인철)	2	▲조성일(01국제관계)	2
▲조홍기(58/63영문)	10	▲김상래(83경영)	2	▲박중배(80토목)	2	▲이영보(65법학)	2	▲조양기(81건축)	2
▲지재성(60/67정의)	10	▲김상술(04세무회계)	2	▲박중세(94경영)	2	▲이영석(63국문)	2	▲조원상(78전자)	2
▲진성스님(04.3/07.2불원)	12	▲김석남(77인철)	2	▲박중철(88산공)	2	▲이영윤(95행원)	2	▲조일성(66국문)	2
▲차문희(72/79정의)	10	▲김성률(72경영)	2	▲박지영(03행정)	2	▲이옥자(75국문)	2	▲조찬용(84국문)	2
▲차영구(56/59경제)	10	▲김성수(89전기)	2	▲배주환(79전기)	2	▲이용재(71임학)	2	▲조태희(74국문)	2
▲최세화(48/56국문)	10	▲김성자(94사회복지)	2	▲백창원(88조경)	2	▲이원희(90경영)	2	▲주원규(65국문)	2
▲최영식(81/02국문)	10	▲김소연(00연영)	2	▲변중호(76승가)	2	▲이장걸(62사학)	2	▲지응종(80건축)	2
▲최인(64/68사학)	10	▲김수년(83통계)	2	▲서승열(71법학)	10	▲이재양(79토목)	2	▲차진구(82건축)	2
▲최주익(99/02사원)	10	▲김수환(76식공)	2	▲소외정(65식공)	2	▲이재필(83농경)	2	▲최경근(61생물)	2
▲한대현(89.9/91.8경원)	10	▲김수진(04정보통신)	2	▲손희주(05경영)	2	▲이정근(92회공)	2	▲최순희(81수교)	2
▲한동식(99.9/00.8사원)	10	▲김승일(82사학)	2	▲송기봉(78국교)	2	▲이정숙	2	▲최영대(01사원)	2
▲한상태(76/80행정)	10	▲김영수(94회계)	2	▲송용운(71행정)	2	▲이정훈(01건축)	2	▲최우수(81경제)	2
▲한성규(65/69물리)	10	▲김영윤(83정의)	2	▲신용현(86한외)	2	▲이준재(78회공)	2	▲최정훈(99행화학)	2
▲허남윤(97.3/97.8사원)	10	▲김영환(62경제)	2	▲신재현(61영문)	2	▲이지형(94철학)	2	▲최준근(01선학)	2
▲허남태(79/87조경)	10	▲김용근(80공경)	2	▲신지연(94고교미술)	2	▲이진상(93행원)	2	▲최종열(86토목)	2
▲현해천(73.3/75.2행원)	10	▲김용문(89산공)	2	▲심진욱(87가교)	2	▲이진혁(79화학)	2	▲최종훈(68국문)	2
▲홍형덕(49/53정치)	10	▲김우중(96산공)	2	▲안병조(70경제)	2	▲이철은(88철학)	2	▲최현식(79미술)	2
▲황기석(99.3/00.2사원)	10	▲김웅수(77영문)	2	▲안한상(69국문)	2	▲이충성(81조경)	2	▲최희륜(64생물)	2
		▲김원식(82경영)	2	▲안희백(78토목)	2	▲이태분(94일원)	2	▲탁병은(81공경)	2
		▲김원철(75영문)	2	▲약산사(사찰)	2	▲이학설(61법학)	2	▲하한기(84건축)	2
일반회원		▲김윤규(73식공)	2	▲양천사(사찰)	2	▲이해도(65국문)	2	▲학명스님(불원)	2
▲강경호(06국문)	2	▲김익수(73건축)	2	▲여인근(64임학)	2	▲이희규(59생물)	2	▲한문규(88불교)	2
▲강무등(71농경)	2	▲김인식(71경제)	2	▲염진상(72법학)	2	▲인기승(81승가)	2	▲한미영(08국문)	2
▲강봉일(98철학)	2	▲김인영(00행정)	2	▲오세청(67사학)	2	▲인형식(65영문)	2	▲한상복(85식공)	2
▲강신제(80토목)	2	▲김인태(61영문)	2	▲오완석(97웅생)	2	▲임경섭(61사학)	2	▲한영수(83수학)	2
▲강익수(85건축)	2	▲김계웅(69영문)	2	▲오정균(77승가)	2	▲임영근(99산원)	2	▲한중옥(70경제)	2
▲강정열(04경영)	2	▲김계철(91농생)	2	▲오희영(80조경)	2	▲임종립(90철학)	2	▲한창옥(62영문)	2
▲강정훈(95산공)	10	▲김재만(62국문)	2	▲유광진(81전기)	2	▲임창빈(98경원)	2	▲함원식(60사학)	2
▲강해성(77전기)	2	▲김준근(96화학)	2	▲윤성덕(97컴공)	2	▲자원사(사찰)	2	▲함태근(65연영)	2
▲경규항(76식공)	2	▲김진원(91전산)	2	▲윤추천(84토목)	2	▲장명순(99교원)	2	▲현승유(72경제)	2
▲고광규(61물리)	2	▲김진하(75무역)	2	▲윤창광(63영문)	2	▲장성관(57국문)	2	▲홍동표(95수학)	2
▲공기태(86회공)	2	▲김창식(65국문)	2	▲윤태명(70농경)	2	▲장영권(51경제)	2	▲홍성호(84무역)	2
▲곽노경(80경제)	2	▲김철(96불원)	2	▲윤홍열(51영문)	2	▲장영상(73식공)	2	▲황규직(79영문)	2
▲구자승(60수학)	2	▲김한성(91한외)	2	▲은민수(87전기)	2	▲장계현(87법학)	2	▲황영대(86선학)	2
▲국기일(63경제)	2	▲나유인(81경영)	2	▲은세균(61사학)	2	▲전웅식(93경제)	2	▲황진희(88조경)	2
▲권정의(05경영)	2	▲남계동(71임학)	2	▲이갑훈(67불교)	2	▲전원수(83회계)	2	▲무기명(50평)	100
▲기인중(73경제)	2	▲도기복(01정보통계)	2	▲이강식(93선학)	2	▲전창원(57경제)	2		



보리음료의 새로운 감각...

나의 맥콜스타일!

물이 좋으니까! 보리가 좋으니까! 몸으로 느끼는 자연주의 웰빙음료!

순수 국내산 보리로 만든 자연주의 음료 - 맥콜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한 구수한 맛의 건강 웰빙음료입니다
 세계적인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깨끗한 우리음료 - 맥콜
 세계 3대 광천수로 인정받는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깨끗한 우리음료입니다
 온가족 남녀노소가 함께 마시는 건강 보리음료 - 맥콜
 보리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모든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보리음료입니다

Life is Cool 맥콜



현대인터넷쇼핑 / 현대특판

동문 선후배님들을 위한 특별세일행사!

유명브랜드제품을 백화점가격의 50% D.C 반값으로



우산세트



볼펜세트



타올세트



넥타이.넥타이핀



꽃배달



경영대학원 39기
이창훈

각종행사! 창립일, 주총, 근로자의날, 칠순답례품 보다 싸고 친절하게 상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8번지 3층 303호 e-mail : hdimall@hanmail.net
 Tel. 02-501-1188 / 02-539-3322 / 019-9420-2233 FAX. 02-539-3322

홈페이지 한글주소
현대특판
 영문주소
 www.hdim.co.kr

SH (유)시호주류

代表理事 南金光

Mobile : 019-321-3133

水原市 勸善區 谷伴亭洞 608-9
 TEL : 031-238-3133~4 FAX : 031-239-3908

www.wiseinonet.com

WISE InfoNet

대표이사 문기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 B/D 3층 TEL. 02-360-3800 FAX. 02-360-3901

■_ 본회 인사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동창회가 나아갈 길

고용규 사무총장

지금 세계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다. 지구촌 사회의 모든 주체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벌어지는 ‘글로벌 무한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거세지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로 인하여 한층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영역도 작금에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파고에 휩싸여 있다. 특히 과거에 상대적으로 경쟁의 논리로부터 비껴나 있었던 탓으로 교육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양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과거 국내에서의 경쟁에만 길들여져 있던 우리 대학들은 갑자기 떠 밀려버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 몹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재단,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창회 등을 주축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과연 동창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 먼저 동창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그것은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아니 보유했던 역량보다 그 이상으로 발휘하여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잠재역량은 바로 지구촌 곳곳에서 재물을 다하는 동문들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일이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국내에 손꼽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학이다. 그것은 그만큼 수많은 동문이 지구촌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동창회는 거미줄처럼 세세하지만 튼튼하게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립하여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하더라도, 동창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동문들 간의 유기적 연결망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창회는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 동창회는 동문들 간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 동문들을 위한, 동문들에 의한, 동문들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배제된 집단이나 조직은 결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으며, 발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동

<본회 인사> 사무총장에 고용규 동문



고용규(70/74정외) 동문이 본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지난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고용규 동문은 모교 정치외교학과·영영대학원(23기)·행정대학원(48기)을 졸업했다.

주요경력

- 前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동문회 사무총장 (1987~2008)
- 前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분과위원장 (1993~2007)
- 前 대한민국 ROTC12기 총동기회 회장 (2001~2002)
- 前 동국대학교 ROTC총동문회 사무총장 (2005~2008)
- 前 명인제약(주) 부사장 (1985~1995)
- 前 (주)에스유 대표이사 (한일합작회사 - 한국 동방유량·일본국 FUKUOKA (주)ATOL) (1996~2003)
- 現 대한민국 ROTC중앙회 부회장 및 사무부총장 (2001~)
- 現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국무도 연합회 회장 (2001~)
- 現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2003~)

문 전체를 위한 동문 전체의 조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나 이해를 자유롭고 정확하게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창회는 동창회의 발전은 물론 동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조직으로 재물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전 동창회는 학교당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동창회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동창회는 동문들의 지혜를 모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동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호수 전체의 장관을 보기 위해서는 호수로부터 멀리, 그리고 높이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동문들은 모교의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잘 조망할 수 있다. 이러한 동문들의 안목과 식견이 동창회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정책적으로 체계화된다면, 동국미래를 위한 금과옥조같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AMBASSADOR

대한민국 호텔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호텔의 미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풀만 앰배서더 창원 시티7

앰배서더 호텔 그룹

